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⑯ 분별공덕품 17

네가지 믿음(四信)

"부처님 수명 영원하다" 확신 복덕무량

믿음 없으면 부처님도 불국토도 없어

본문인 정종분을 마치고 유통분에 해당하는 17장에는 공덕의 설시(說示)를 통하여 후세에 '네 가지의 믿음'이라 불리는 <법화경>의 수행 덕목이 설해져 있다고 천태대사는 <법화문구>에서 말하고 있다.

1) 일념신해(一念信解): "만일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설법을 듣고 그저 한 생각이라도 그 가르침을 믿고 해석한다면, 그 사람이 받는 복덕은 한량없다."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잠깐만이라도 '확실히 그렇다'고 확신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이 얻는 복덕은 한량없다는 것이다. 짧은 한 생각이지만 마음속으로 확신할 수 있다면 그 공덕은 6바라밀 가운데 반야바라밀을 제외한 5바라밀의 수행을 80만억 나유타 겁 동안 계속한 것보다 백배, 천배, 백천만억배를 넘어서 헤아릴 수 없다고 한다. 즉 믿음이란 그 어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부처님의 영원한 수명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약해언취(略解言趣): "만일 부처님의 수명이 무한하다는 것을 듣고 그 말이 품고 있는 큰 뜻을 이해하면, 그 사람이 얻는 복덕은 헤아릴 수 없으며 능히 여래와 같이 위없는 지혜(무상혜, 無上慧)를 얻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리라."

부처님의 수명이 무한하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믿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그 뜻을 거의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의 복덕은 한량없어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얻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다. 즉 깨달음 얻겠다는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이다.

3) 광위타설(廣爲他說): "널리 이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며 자신도 굳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남에게도 간직케 하며, 자신도 베껴 쓰고 남에게도 쓰도록 하며, 또 꽃 · 향 · 영락 · 당번 · 비단 해가리개 · 향유와 우유를 정제하여 만든 기름으로 밝히는 소등(蘇燈)으로 <법화경>에 공양하며, 그 사람이 받는 공덕은 한량없어 결국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주어 간직(수지)케 하며 서사(書寫)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갖가지 공양물로 <법화경>에 공양하면, 그 사람이 받는 복덕은 한량없어 부처님의 일체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원래 복덕이란 남에게 베푸는 것이므로 <법화경>을 널리 남을 위해 전해주는 실천행이야말로 참다운 공덕을 쌓는 일이 되는 것이다.

4) 심신관성(深信觀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는 말을 듣고 깊이 마음 속에 믿고 이해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항상 영축산에 있으면서 보살대중이나 많은 성문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설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사바세계의 땅이 청보석으로 되어 단단하고 평평하며, 여덟 개의 길이 서로 교차되는 곳에 염부단금(閻浮檀金)으로 경계를 하고 보배나무가 늘어서 있으며, 많은 집들이 다 보배로 지어졌고 보살 대중이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는 마음 깊이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항상 부처님이 영축산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현실의 사바세계를 마치 지상의 패러다이스처럼 볼 수 있다고 한다. 앞장의 '여래수량품'에서도 "자기의 몸과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영축산에 그 모습을 나타낸다"고 설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것이 마음 속 깊이 '여래수량품'의 법문을 듣고 그것을 확신함에 의해 가능하다고 설한다.

이상 네 가지 믿음(四信)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보면 모두가 '믿음'으로 일관되어 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입멸을 눈앞에 둔 석가모니불이 사실은 아득한 옛날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여 현재에 이르고 더욱이 미래에도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으며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이것을 "우선 믿어라"고 말한다. 믿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다시 '믿음'을 깊게 하여 철저해지면 '믿음'의 결과로 부처님을 그리고 이 세상의 낙원을 볼 수 있다고 설한다.

무릇 모든 종교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이 <법화경>은 '믿음'에 의해서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세계이다. '믿음'이 없으면 2승작불(二乘作佛)도 구원의 본불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신약성서>가 '증언의 글(증언서, 證言書)'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 <법화경>은 '신앙의 글(신앙서, 信仰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⑰

책과 불립문자

사전은 '책'을 '어떤 생각이나 사실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한 종이를 꿰맨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것'이라 정의한다. 휴대하기 쉽고 보존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책은 지식과 정보를 전파 및 보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나아가 인터넷 혁명시대인 오늘날에는 전자책이란 새로운 형태의 책까지 등장,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주제의 책을 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AD 105년 중국 후한 시대 채륜이 발명한 제지술은 8세기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졌으며 1445년경 구텐베르크가 활자인쇄술을 발명한 이후 이 기술은 급속히 유럽 전역에 퍼졌다. 또한 근대 자본주의 확립기인 1871년, 윤전기의 발명 이후 지식이 중산층까지 확산되고 지식인층이 급증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지적혁명이 일어났다.

책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선가(禪家)의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은 불교경전과 주옥같은 수행지침서를 외면하라는 뜻으로 오해되고 있다. '불립문자'라는 말은 <무문관> 제6칙에 그 유래가 잘 담겨 있다. 세존께서 옛날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大衆)에게 보였으나 오직 가섭존자만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세존께서 "나에게 정법안장 열반묘심(正法眼藏 涅槃妙心), 실상무상 미묘법문(實相無相 微妙法門), 불립문자 교외별전(不立文字 敎外別傳)이 있으니 이를 가섭에게 전하노라."라고 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불립문자'는 세존께서 깨달은 경계를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말이나 글을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그 증거로 세존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제자들을 위해 49년 간 설법하신 것(훗날 방대한 대장경으로 결집)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요즈음 달라이 라마나 틱낫한 스님의 책들이 널리 읽혀지고 있다. 여기에는 다만 독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나 지속적인 실천은 어려운), 저자들의 수행 체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내용이 글에 담겨 있다.

그림 · 문병성

이런 글을 볼 때 선 수행자가 '불립문자'라고 해서 오로지 다리만 틀고 앉아 있어서만은 정말 곤란하다. 사실 자기의 수행이 닦아지는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글을 접하다 보면 자기의 경계를 다시 확인해 볼 기회도 갖게 되며 말이나 글을 빌어 자기의 체험의 경계를 알기 쉽게 나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경계 언어로 표현 못한다"를 "수행 지침서 외면하라"는 뜻으로 오해

끝으로 필자의 스승이셨던 종달 이희익 노사의 '불립문자'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원효대사나 보조국사 같은 분들은 한학에 조예가 깊었다. 그래서 어느 경전이건 자유로이 독파할 수 있었다. 거기다가 견성(見性)을 하였으니 그 학문이 더욱 명료해져(지식을 지혜로 탈바꿈시켜) 그만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겠는가! 설령 깨쳤다 해도 확식이 부족하면 깨침을 자유로이 활용하지 못한다. 활용하지 못하면 이는 '죽은 선[死禪]'이다. '산 선[活禪]'을 해야지 죽은 선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강대 물리학과
ypark@ccs.sogang.ac.kr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㉙

禪과 21세기

멀쩡한 눈 저버리지 말라

자기의 본래 면목 확인하는 것이 '선 공부'

도(道) 배우는 이들이여! 그대들은 이 늙은 중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참된 도라고 여기고는, 선지식은 불가사의하고 나는 범부의 마음이니 감히 저 노인을 헤아려볼 수가 없다고 여긴다. 어리석은 자들아, 그대들은 일생 동안 단지 이러한 견해만 지으며, 스스로의 멀쩡한 두 눈을 저버리고 있구나!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망아지처럼 차갑게 입을 다물고서, 나는 감히 선지식을 훼손하지 못하니 구업(口業) 짓는 것이 두렵다고 여긴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큰 선지식이라야 비로소 부처와 조사를 훼손할 수 있으며, 천하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대장경의 가르침을 배척하며, 어린 아이 같은 무리들을 비난하고, 순조롭고 어려운 가운데에 참사람을 찾는다. 그러므로 나는 20년 동안 업의 성품을 찾았으나 겨자씨만큼도 얻을 수 없었다. 새색시 같은 선사라면, 절에서 쫓겨나 밥도 얻어먹지 못할까 두려워 안정되지도 즐겁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옛부터 선배들은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 쫓겨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법이 귀한 것인 줄 알았다. 만약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긍정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자가 한 번 울부짖으면 들개의 무리는 머리통이 부서지는 것이다.

공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 선 공부란 바로 자신의 본래 면목, 스스로의 참 존재를 확인하는 체험이다. 그러므로 선 공부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본래 면목을 직접 확인하는 체험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고, 남에게 확인 받고 인정 받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본래 면목을 확인하면 나와 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이치로 보아서도 이 점은 분명하다.

나 자신에게서 직접 확인된다는 것은 바로 법이 나 자신에게서 실현되고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란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있는 여기에서 모든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곧 세계의 중심이다. 내가 세계라는 그림을 보고 있는 주관(主觀)이라는 말이 아니다. 참된 나는 보고 보여지는 관계 속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그저 지금 눈앞에 살아 있을 뿐이다.

보통 살아 있다고 하면 몸이 움직이고 생각이 일어나고 의식이 활동하고 느낌이 살아 있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몸이나 생각이나 의식이나 느낌을 따라 가서는 진실로 살아 있는 것을 놓치게 된다. 진실로 살아 있는 것은 몸이나 의식이나 생각이나 느낌의 움직임과 함께 드러나지만,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여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언제든 이런 인연 저런 인연 이런 경계 저런 경계가 드러나면 살아 있음이 확인되지만, 인연이나 경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있다거나 없다거나 인연을 따른다거나 인연을 떠난다거나 하는 판단을 통해서는 진실로 살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단지 몸이 움직이고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있고 의식이 움직일 때, 오직 살아 있음만이 진실하고 몸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의식은 더 이상 진실하지 않게 되어야 비로소 참된 살아 있음에 조금 접근한 것이다. 오직 살아 있음만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진실하지만, 살아 있음을 살아 있음으로 인식하거나 느끼거나 말하거나 찾거나 한다면, 그 순간 살아 있음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감아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그것이 바로 살아 있음인데, 다시 살아 있음을 찾고 있으니 어찌하리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 선어록 강좌 안내
부산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불교문화원 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종정 진제
주지 지성
부주지 선봉

총무 진담 기획 법륜 교무 선문
기획 법륜 사회 덕현 포교 진오
호법 고경

승가대학 강주 대원 금당선원 선원장 지환 外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
전화 053)982-0101~2 팩스 053)985-4405

한국에 남방의 위빠사나 수행법이 소개된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초기불교와 남방 상좌불교에 대한 관심, 특히 위빠사나 수행법을 중심으로 한 근본불교 수행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회는 초기 경전 가운데 위빠사나 수행의 가장 중요한 소의경전인 『대념처경』과 그 주석서에 나타난 수행법을 팔리 원전을 통해 정리하고, 실제로 이 경전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는 두 가지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근본불교와 수행에 관심 있으신 사부대중의 동참을 바랍니다.

근본불교 학술대회

• 주 제 : 『대념처경』의 수행이론과 실제
• 장 소 : 마포 불교방송 대법당 (불교진흥원 3층)
• 일 시 : 불기 2546(2002)년10월 19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 주 최 : 근본불교 수행도량 흥원사 (회주 : 동주스님)

▶ 순 서 삼귀의례와 오계
• 인 사 말 : 근본불교 수행도량 흥원사 회주 원명스님
• 축 사 : 소비타 마하테라(스리랑카)
• 기조 법문 : 우 빤디따 사야도 - 『대념처경』과 위빠사나 수행.

▶ 주제발표
1부 : 『대념처경』과 주석서에 대한 이해 ····· 사 회 : 김재성
1. 임승택(동국대 강사) : "『대념처경』의 이해"
• 논 평 : 조준호 (동국대 강사)
점심 공양 12시 30분 - 1시 30분
2. 미산 스님(백양사 참사람 수행원 원장) : "『대념처경』 주석서에 대한 이해"
• 논 평 : 안양규 (동국대, 경주, 전임강사)
2부 : 두 수행전통과 『대념처경』에 대한 이해 ····· 사 회 : 미산 스님
3. 일중스님(인도 델리대학 박사과정) : "고엔카 수행법과 『대념처경』"
• 논 평 : 재연스님 (실상사, 화엄학림 학감)
4. 김재성(고려대장경연구소) : "마하시 수행법과 『대념처경』"
• 논 평 : 안승준 (동국대 강사)
• 종합토론 : 진행 인경스님(선상담연구원 원장)

우 빤디따 사야도(큰스님) 초청법회

우 빤디따 사야도(1921 -)는 미얀마 마하시 스님(1904-1982)의 수제자로 마하시 스님의 입적 후, 마하시 센터의 원장을 역임하신 후, 1990년 빤디따라마라는 위빠사나 수행처를 건립, 후학 양성과 위빠사나 지도에 힘쓰고 계십니다. 1988년 처음 한국에 위빠사나를 전하신 이래, 지난 2000년에는 봉인사에서, 2002년 5월에는 천안 위빠사나 수행처 호두마을에서 4주간 집중수행을 지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일정 관계상 근본불교 학술대회의 기조법문과 세 번의 특별법회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행에 대한 법문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주 제 : 일상생활과 수행
• 일 시 : 10월 20일 : 오후 2시 - 4시, 10월 21일, 22일 : 저녁 7시 - 9시
• 장 소 : 마포 불교방송 대법당 (불교진흥원 3층)
• 주 최 : 근본불교 수행도량 흥원사,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81-6
• 전 화 : 02) 822-1990, 전송 : 02) 822-1996